

해명자료

문의 :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광혁 과장(☎750-1650)
기획조정실 김용미 사무관(☎750-1651) pokemon@kcc.go.kr

- ‘방통위 규제건수 증가’ 기사, 사실과 달라 -

‘10. 5. 14(금) ‘방통위, 강압적 행정지도 논란’ 기사(세계일보, 13면)와 관련,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.

□ 보도 내용

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하는 규제건수(부수규제 포함)는 올해 342건으로 전년도 134건에 비해 155% 늘어났다.

□ 해명 내용

- 방송통신위원회는 ‘10년 초 국무총리실·규제개혁위원회의 미등록규제 정비 지침 및 규제정보화시스템 도입(‘09.8월) 등에 따라 기존 규제를 주된규제와 부수규제로 분리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.

※ 주된규제, 부수규제 개념 :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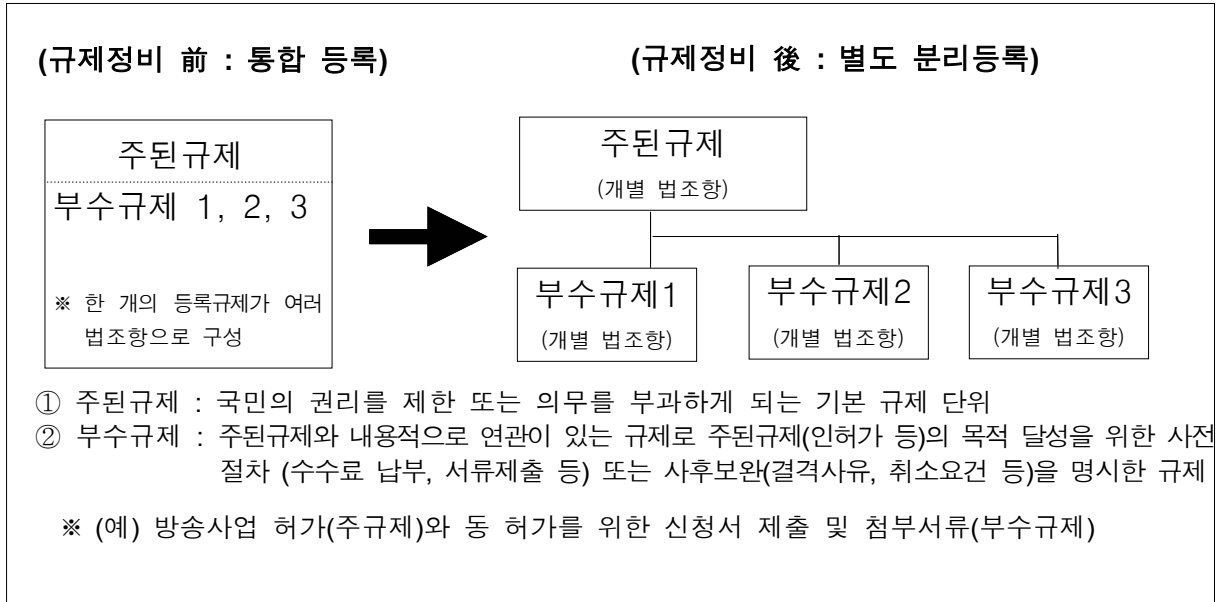
-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법조항이 함께 등록된 기존 규제(주규제)를 개별 법조항 별로 분리해서 새로운 부수규제로 분류·산정함에 따라,
 - 등록규제의 건수가 수치적으로 늘어났지만,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하는 실제 규제가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.

- 또한, 타 부처의 경우에도 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등록규제(주된규제+부수규제)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전부처(34개) 등록규제 수 : 5,186건(‘08년)→11,050건(‘09년)→1,1907건(‘10년)

<붙임>

□ 등록규제 정비 개념



□ 주요부처별 등록규제 변동 현황

(단위 : 건)

구분	2008년	2009년	2010년	비고 (증가율 : '08년→'10년)
방송통신위원회	138	134	342	'10년초 정비 (247%)
행정안전부	146	169	363	'10년초 정비 (248%)
국토해양부	929	2,589	2,524	'09년말 정비 (272%)
지식경제부	295	1,054	1,061	'09년말 정비 (429%)
교육과학기술부	247	570	572	'09년말 정비 (231%)
전체부처(34개)	5,186	11,050	11,907	(229%)